

[오피니언]

光日春秋

고원정



무엇이나 시작한다는 것은 아름답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새 달력, 새 다이어리, 새 스케줄표를 대하면 마음이 설레인다.

새해의 계획을 짜는 일이 이제는 낯간 지러울 나이에 되었건만 그래도 변함없이 푸른 펜을 들어 조목조목 정리해 놓아야만 직성이 풀린다.

그런 심사는 우리를 평범한 정상인들만의 것은 아니어서 행사개나 한다는 이들의 신년사가 이따기면 각종 언론 매체를 화려하게 장식하곤 한다.

그러나 그렇게 웃어넘길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이 있다. 이른바 공인들이다. 특히 정치인들이다.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꿈이나 희망사항이라 부르지 않고 '공약'이라 부른다. 국민 모두와의 약속인 이 공약이

에는 70%나 30%가 있을 수 없다. 무조건 100% 달성해야만 하는 계획이다. '아니면 말고'가 통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거품을 빼겠다고 했으면 빼야 하고, 조령산맥을 뚫고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서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뚫어야만 한다. 철도 폐리를 운행하겠다고 했으면 그 첫 삽이라도 떠야만 한다.

송년사를 쓰라

이 모두 떨어지면 두 가지 공약 모두 타락 공론에 그치고 만다. 선택을 받고서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급주나 급연같은 개인의 희망사항만큼도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또한 수많은 장밋빛 약속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들에게 나는 제의하고 싶다. 신년사가 아닌 송년사를 써보라고. 경선이든 대선이든 당선 소감이 아닌 낙선 소감을 써보라고. 어떤 경쟁이든 승자와 패자는 거러지게 마련이다. 특히 선거는 단 한 사람만이 선택받는 무자비한 게임이다. 반드시 승자가 되어 살아남겠다는 결의는 현명하지 못한 생각일 수도 있고 지나친 독선일 수도 있다.

시설

여천산단 '다이옥신 비상'...대책 서둘러라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고농도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여천산단지의 산업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던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여천산단의 공해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더욱 그렇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년 8개월간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 83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과 대기, 토양 중 다이옥신 잔류농도를 조사한 결과 여수시 월내동 여천산단 인근 폐수처리장의 방류수에서 일본 배출 허용 기준보다 3배 이상 높은 31.913pg/L(1pg는 1조분의 1g)이 검출됐다. 이 같은 여천산단 수질 다이옥신 잔류농도는 타지역 공단에 비해 최고 200배나 높은 것이다.

타지역 산단에 비해 월등히 높게 검출됐다. 여천산단 주변 수질과 토양이 다이옥신 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암, 기형, 피부병, 내분비 장애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급성 독성물질로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극물이자 '환경호르몬'으로 불린다. 문제는 이러한 무서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다이옥신의 확산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다이옥신을 규제하는 법체계가 나뉘어 있다. 현재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을 뿐이다.

'사찰 관람료' 마찰 합리적 해법 찾아야

새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공원 내 사찰들이 기존의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마찰을 빚고 있는 국립공원원은 지리산과 내장산, 월출산 등 전국적으로 15곳에 이른다. 특히 일부 사찰은 관람료를 대폭 인상해 탐방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관람료 징수에 따른 논란은 오래됐다. 사찰측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1천400~2천200원 수준의 관람료를 공원입장료와 함께 받아왔으나 탐방객들은 사찰을 둘러볼 의사가 없는데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통행장수 논란은 사라졌지만 관람료 징수 장소가 새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리아 사찰 및 주변 탐방로 정비 등 문화재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설명하지만 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일부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대폭 인상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리산 화엄사 매표소는 지난해까지 2천200원이던 관람료를 3천원으로 인상했고 월출산 도갑사는 1천400원에서 2천원으로 올렸다. 사찰측은 매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탐방객들의 불만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無等鼓

금연, 절주, 다이어트, 외국어공부,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새해는 으레 새로운 결심과 함께 시작된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남성들은 금연,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올해 가장 큰 결심으로 꼽았다.

결심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작심삼일(作心三日)이다. 작심삼일은 선(先) 삼일 후(後) 작심 즉, 3일 동안 생각한 후에 결심을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코치라는 직종도 있다. 지난 2000년부터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 직업은 사람들이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분야도 체중 감량부터 규칙적인 운동, 재정문제 등 다양하다.

와 소망을 털어놓는다. 새해 초는 이와 같은 거짓말이 용인되는 시즌이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체스터 필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실린 구절들이 새해 다짐의 허망함을 오래 전부터 확인된 사실이다.

새해가 밝았으나 정초 분위기가 예년만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다. 새해 결심 덕분에 1월이 대목인 금연 보조상품의 판매도 신통치 않다고 한다. 오랫동안 서민들을 짓눌러 왔던 경기 침체에도 높은 실업률, 부동산 광풍 등이 결심할 엄두조차 빼앗아 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나 작심삼일로 끝날지언정 새해 결심은 하는 것이 낫다. 계획을 세워 사흘이라도 충실히 보낸다면 그 사용은 1년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분야도 체중 감량부터 규칙적인 운동, 재정문제 등 다양하다. 새해에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맹세

작심삼일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유인학



지난해 국회가 국립영상강고문화(마한)박물관 건립을 위해 2007년 예산에 10억을 계상함으로써 14년을 끌어온 국립박물관 전남 유치 계획이 결실을 맺게 됐다.

셋째 박물관 유치와 관련, 지역갈등이 증폭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치와 명칭은 전적으로 문화관광부와 중앙박물관에 맡기고, 전남도나 해당 시군과 정치인 등은 관여하지 않기로 한 원칙이 고수돼야 한다. 당초 2007년 문광부에 예산에 없던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신사업장'이 지켜졌기에 총의를 모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고

정기주



고객의 문의에 응답하고 각종 불만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콜센터는 전국적으로 약 3천개가 가동중이며 약 35만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매년 천명 이상의 신규 인력 수급을 위한 인력수급 포탈 인프라 및 모든 콜센터들이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컨텐츠를 공급 및 교육하는 교육 훈련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광주 콜센터 서비스 산업 육성 이렇게

터에서 약 5천명의 상담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다. 콜센터의 지역유치는 신규 고용창출, 상권 활성화,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된다. 콜센터산업은 무공해 산업, 고용 창출, 골목없는 공장으로 특징지어지며, 300명 이상의 대형 콜센터 유치는 대기업 유치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정보와 DB 및 인적네트워크를 콜센터 유치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광주주재대학교도 지역 유일의 콜센터 인재교육센터로서 지역 콜센터 인력공급에 노력하고 있으나 광주지역에 필요한 연간 상담인원 1천명만을 양성하기에 는 더 많은 교육기관들이 필요하다.

환경보호 차원의 비닐봉투 판매 이해해주길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한다. 벌금 내는 것이 무서워서라기보다 환경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에 탁 놓는게 아닌가. 정말 아들들과 같은 나이쁜인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며 영업하는것도 속상했지만,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그 정도로 무관심한것에 놀라웠다.

마한박물관의 의미

있어, 이를 조망하기 위한 고대사 박물관 건립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영산강고문화(마한)박물관은 광주박물관과는 다른 특성을 가져야 한다. 영산강 고문화권은 마한왕국과 여러 세력이 확고한 국가체제를 갖추면서 세력의 교체가 이뤄지는 등 기원 6세기까지 독자적인 정치·문화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박물관 명칭과 관련해 800여년의 마한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잊혀지고 있는 '마한'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했으면 한다. 박물관 명칭은 지역 이름을 쓰는 것이 보통이나 그동안 '마한'의 역사와 문화가 너무나 소홀히 다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친절한 한전 직원에 고객만족도 1위 실감

며칠 전 고객 만족도 평가 1위를 수상한 한전 관련 기사를 읽었다. 지난 여름 갑자기 집에 전기가 나가 버려 한전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 직원이 우선 놀라지 말라며 친절하게 상황 설명을 해주었고 다시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줬다. 또 30분이 지나기 전 직원이 방문, 신속한 조치를 취해줬다.

그후 4개월 정도 지나서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한전에 전화를 했는데 신청 관련 상세한 안내를 하더니 "고객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려겠습니다"라며 고객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줄 알고 고객 통화료까지 배려하는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쏙 들었다.

光日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